



◀일본 나고야시 주민들이 주최한 '화쟁사 후원회'를 비롯, 가토 형제와 인연을 맺은 한국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화쟁사 건립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월 기공식을 마친 후 한국 원효종스님들과 기념촬영한 가토 마사오(왼쪽에서 첫번째), 미즈오(세번째), 박상규(네번째)씨.

진각학원 법인 설립위 구성

위원장 혜정대정사...심인당 주교 전보인사도

진각종은 구립 27일 통리회 회의실에서 제198회 원의회 및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칭)학원법인 진각학원 설립과 관련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한편, 추진위원장에 혜정(교육원장), 법인설립분과위원장에 해인(통리원 총무부장), 대학설립계

획분과위원장에 수성(재무부장), 학교현장행정분과위원장에 관중(교법부장) 대정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와 함께 주교의 전보발령 및 기로스승(정년퇴임한 원로스승)의 포교 활동을 명하는 교화발령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구 보현심인당 주교에

상월스님 91회 탄신법요식 11일 단양 구인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윤택)은 11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서에서 중창조상월 원각대조사 제91회 탄신법요식을 봉행한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의 증명아래 전 종단 스님들과 신도, 지역 기관장, 불자국회의원 등 3만명이 참석하여 상월원각 대조사 스님의 생애를 추모하고 유훈을 기리게 된다.

이경숙 기자

게시판

▲어린이 겨울학교교과=통도사 일산포교당 여사는 12-14일까지 '소중한 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어린이 겨울학교교과를 연다.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치악산 구룡사 등에서 여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4~6학년 8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4만5천원. 02905-7766

▲무료급식 및 후원자=서울노인복지센터는 급식사업 및 헌물, 식품, 생활용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사회교육, 취미여행, 의료사업 등 운영연선에 관련된 후원을 할 수 있다. 02739-9503

▲청소년·어린이 방학특강=부산시 양정정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어린이 방학 특강을 연다. 별자리교실, 만화교실, 힙합댄스, 인터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051868-0750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금강

불교대학은 2002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교법사과정, 천태학과 등으로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은 2월 5일까지. 전형은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실시되고, 면접일은 서울 2월 20일, 부산 2월 23일. 02576-6401 051808-0713

▲아동한문예교실 무료수강생 모집=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겨울방학 아동한문예교실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예절, 사자소화, 사물놀이 등이 개설될 이번 교실은 은평구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인문교과목은 8일, 02385-1351

▲불교사회복지전문과정 교육생 모집=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대학에서는 불교사회복지전문과정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수업기간은 3월 ~ 6월(1학기)과 9월~12월(2학기) 등으로 총 1년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수강료는 학기당 22만원이다. 02734-0612~3

립하는 일을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 조직이 되지 않으면 평양에서의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 때때다가 말뿐이다. 그 후 평양에 갈 때 마다 석왕사를 한번 제대로 보고려고 하였으나, 북의 친구들은 군사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교통이 안 좋다는 핑계로 상면을 가보막곤 했다. 그나마 내 대신 노구를 이끌고 석왕사에 가서 안부를 전하고, 재(齋)까지 올리고 온 분은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다. 석왕사가 이 태조에게 씌운 서성동무(雪城東樓)를 지키느라 그 어깨가 늘어났는지이다.

안변의 석왕사를 지나친 것은 95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이다. 원산을 거쳐 고성을 향하는 길에 문득 석왕사가 어디쯤이나 있으니 실봉산 너머 저쪽 남대천 상류에 있던 것이다. 원산에서 불과 30킬로미터, 지척이었다. 남녘의 대덕 월산(月山)스님이 출가하여 널리 알려졌기로 더욱 더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해 갈 방도를 청하였으나, 미리 '조직'이 되지 않아 갈 수 없었다. 북에서는 무슨 일이든 '전시' 개념이어서 사전 계획 수

행하는 일을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 조직이 되지 않으면 평양에서의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 때때다가 말뿐이다. 그 후 평양에 갈 때 마다 석왕사를 한번 제대로 보고려고 하였으나, 북의 친구들은 군사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교통이 안 좋다는 핑계로 상면을 가보막곤 했다. 그나마 내 대신 노구를 이끌고 석왕사에 가서 안부를 전하고, 재(齋)까지 올리고 온 분은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다. 석왕사가 이 태조에게 씌운 서성동무(雪城東樓)를 지키느라 그 어깨가 늘어났는지이다.

안변의 석왕사를 지나친 것은 95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이다. 원산을 거쳐 고성을 향하는 길에 문득 석왕사가 어디쯤이나 있으니 실봉산 너머 저쪽 남대천 상류에 있던 것이다. 원산에서 불과 30킬로미터, 지척이었다. 남녘의 대덕 월산(月山)스님이 출가하여 널리 알려졌기로 더욱 더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해 갈 방도를 청하였으나, 미리 '조직'이 되지 않아 갈 수 없었다. 북에서는 무슨 일이든 '전시' 개념이어서 사전 계획 수

행하는 일을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 조직이 되지 않으면 평양에서의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 때때다가 말뿐이다. 그 후 평양에 갈 때 마다 석왕사를 한번 제대로 보고려고 하였으나, 북의 친구들은 군사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교통이 안 좋다는 핑계로 상면을 가보막곤 했다. 그나마 내 대신 노구를 이끌고 석왕사에 가서 안부를 전하고, 재(齋)까지 올리고 온 분은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다. 석왕사가 이 태조에게 씌운 서성동무(雪城東樓)를 지키느라 그 어깨가 늘어났는지이다.

<다음은 금강산 신계사편>

日형제의 대 이은 보은

패잔병 아버지 한국인도움 무사귀환 감사

51년 전 일제 패망 당시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일본인 가정 세대를 넘어 자식대에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버지를 구해준 한국인들에게 보은하고 한국인간에게 정을 나누고자 한국인도움 운동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인도움 운동사업은 1995년 11월 11일 기공식을 마친 후 한국 원효종스님들과 기념촬영한 가토 마사오(왼쪽에서 첫번째), 미즈오(세번째), 박상규(네번째)씨.

화쟁사상을 일본 사회에 널리 구원할 목적으로 건립되는 화쟁사는 70평의 대웅전을 비롯 명부전, 삼성각, 일주문, 종각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건축자재를 모두 한국에서 가져다 쓸 방침이다. 또한 태평양전쟁으로 일본병에 끌려와 희생된 채 전국 사찰에 보관중인 유골들을 15m의 대 일여래불상의 지하에 납골안치하고 위령천도할 계획이다. 불상은 목아 불교박물관에서 제작중이다.

가토 미즈오씨는 "아버지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한국사람 덕분이

고, 자식들에게 이 사업을 유언으로 남겼다.

하지만 그 뒤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공사비 10억원을 사기당해 착공도 하기전에 사업을 중단해야 했고,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땅을 팔도록 유혹해온 부동산업자도 많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나고야 주민들이 '화쟁사 후원회'를 조직하고 "징용됐던 한국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일본인들의 손으로 절을 짓자"며 모금활동에 나서서 등 모두가 자기 일처럼 사활 건립을 돕고 나섰다.

그동안 가토 미즈오씨는 이 사업을 위해 수차례 한국을 다녀갔다. 한국식 절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계사 등 국내 유명사찰은 모두 둘러봤다. 소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시형 박사가 중심이 된 '태평도 모인'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가토 형제는 부지 한켠에 한국식 임시법당을 마련해놓고 선친의 유언이 이뤄지도록 매일같이 불공을 드리고 있다.

화쟁사 건립추진위원회(한국측 대표인 박상규 원효종 사무국장)는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 스님이 원효상사"라며,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선양할 화쟁사 건립은 일제 패망 당시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모실 절을 짓기로 하고 돈을 모았다. 그런데 절터만 사놓은 상태에서 지난 81년 임종을 맞았

나고야 인근 한국식사찰 '화쟁사' 추진

대웅전등 소요건축 자재도 한국산으로

다. 그 덕에 너희들도 태어날 수 있었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일본 땅에서 숨진 한국인 유골을 모실 절 지을 것을 유언했다"며 화쟁사 창건동기를 밝혔다.

사찰에서 만든 토종 메주를 주물받습니다.

공정하고 맛있는 메주는 수확후에 쪄낸 콩을 손으로 직접 만물이 깨끗한 기온과 장성이 중요하며, 메주는 장에서 자연 건조 100% 무리함을 기피하여 장맛을 내고 싶어 나무통에 넣어 다음, 손으로 다져서 찻방과 허브 진통제 및 인공 조미료와 향료 없이 자연 건조로 만듭니다.

메주는 장에서 자연 건조 100% 무리함을 기피하여 장맛을 내고 싶어 나무통에 넣어 다음, 손으로 다져서 찻방과 허브 진통제 및 인공 조미료와 향료 없이 자연 건조로 만듭니다.

메주는 장에서 자연 건조 100% 무리함을 기피하여 장맛을 내고 싶어 나무통에 넣어 다음, 손으로 다져서 찻방과 허브 진통제 및 인공 조미료와 향료 없이 자연 건조로 만듭니다.

메주는 장에서 자연 건조 100% 무리함을 기피하여 장맛을 내고 싶어 나무통에 넣어 다음, 손으로 다져서 찻방과 허브 진통제 및 인공 조미료와 향료 없이 자연 건조로 만듭니다.

'직지' 상권 금속활자본 복원

무형문화재 오국진씨 1년4개월만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이하 직지의 상권(上卷)이 복원됐다.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하권(下卷) 1권만 소장돼 있을 뿐 상권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 청주시는 그동안 직지찾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해온 직지 찾기 운동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2000년 9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금속활자 부문 중요 무형문화재 오국진 씨에게 의뢰해 1년 4개월여 만에 <직지 상권> 금속활자 복원을 완료했다.

총 1억8000만원이 투입돼 복원된

<직지 상권>은, 1378년 여주 취암사에서 찍은 목판본을 토대로 금속활자를 주조,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을 각각 200부씩 간행했다. 이은자 기자

성불사 독거노인 돕기

충남 천안 성불사(주지 원경)는 지역의 독거노인 30명에게 구랍 31일 쌀 20kg씩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성불사는 해마다 독거노인은 물론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지역의 불우 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한명우 기자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1부 차장)

"뭇 천만원으로 화장실 하나 만들기도 벅차오"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한 한 교구본사 스님의 영이다.

구립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02년 월드컵 대비 전철사찰 숙박시설 활용지원(템플스테이) 사업은 35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25억 원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불교계가 추진 중인 전철사찰 개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안의 축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계종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찰은 20여곳, 한 사찰에 배정되는 예산은 5천만원 정도로, 사찰의 해우소나 샤워실을 개조 또는 신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민간자본 보조형'으로 지정돼 사찰의 해우소나 샤워실 등의 개·보수에만 사용토록

템플스테이 사업비 10억

되어 있는 템플스테이 예산은, 사찰에서 자부담 60%를 추가하도록 되어있어 불교계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단순히 외국 관광객의 숙박난 해소를 위한 임시변통이 아니라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사찰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문화는 불교인의 유산이 아닌 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대변하기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문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이미지, 또는 국가 브랜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템플스테이 사업이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불교계 역시 템플스테이를 한번에 끝나는 행사로 보기 보다는 중단차원에서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포교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목초 수액 시트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수액이든? 나무가 지하로 뿌리를 뻗아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 올리므로 가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뿌리바닥에 붙어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빨아주는 방법이다.

● 베타요오브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발바닥과 환부에 붙여 수축을 배출 혈액을 깨끗이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오염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잡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인 수면 중 발 바닥으로 부터 뇌로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아래로 쌓인 노폐물을 잡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웅천에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빠짐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새로운 건강법 목초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몸에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향성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향성 물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 금어전 근육, 어깨, 무릎, 머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간(肝)

간 지방간 관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기마술)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동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립니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망속에 묻어온 빈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민)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 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양!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왔다.
-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픈 무릎이 안 아프다.
-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 천식이 떨어졌다.
- ◆ 인파선이 나왔다.
- ◆ 자궁 목욕이 없어졌다.
- ◆ 변비가 낫았다.
-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저산삼(長羅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선물용에는 서주봉사하는 심정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산동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려주시고, 1년,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오희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해져오던 체질개선요법 (동통, 이비, 지림, 삼한 환기증)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 (구토, 눈의 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영허가를 받은 음식에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 있어도 인체에 유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다단계판매, 허위광고 광고등 위법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풀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고시마현 구니와에서 개발되어(개이소엔)안료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시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분 : 탄백질, 매실, 대추 등)

◆ 현대애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행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